

보도시점

2026. 4. 8.(수) 10:00

배포

2026. 4. 8.(수)

# 유탄유·선박연료 시장 교란 우려 대비 유통 쏠 과정 들여다본다

- 민생·산업 직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 개최(4.8)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최근 유탄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의 가격 상승과 유통 물량 감소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4월 8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제조사, 공급사, 판매사 등 유통구조 참여자 및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유탄유의 경우 정유사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25.3월 71만b → '26.3월 76만b(잠정), 대한석유협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공급량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선박연료 역시 연안지역과 제주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탄유와 선박연료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았다. 제주도 및 연안지역 등 운송 취약지역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앞서, 산업부는 4.1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파견하여 유탄유, 선박연료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와 범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제품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휘발유·등유·경유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오일 콜센터”를 민생·산업과 직결되는 윤활유, 선박연료로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동 센터는 전화 1588-5166, X(구.트위터)로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품수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매주 정례화)하고,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상철 (044-203-5225)
	해양수산부 연안해양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자	사무관	신재균 (051-773-5735)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1-3858)